

르네 지라르(R.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 정립 모색

(A Searching Military Mission Theology on Rene Girard's Scapegoat Theory)

서민우 상병



- 육군 제 76 보병사단 진격군인교회 군종병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 B)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M. Div) 수학중

1. 연구 동기와 방법

고대 철학자 헤라클리토스(Heraclitus)는 “모든 만물은 대립에서 나온다”는 말을 통해 우주 만물과 세상의 일들이 가치 대립을 통해 발생하고 흘러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말이 나온 지 2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은 그의 말이 여전히 유효성을 지니고 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가정, 학교, 회사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사소한 갈등에서부

터 시작하여 충돌, 심지어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감정과 욕망을 지닌 존재이고, 욕망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사회적 제 현상들을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욕망이 시발점이 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폭력’이라는 것도 발생한다.

이것은 일반사회에서만 아니라 군대라는 공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과거 80년대에는 군내에 어두운 면이 종종 있었으나, 그 이후로 장병들의 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군내에 설립된 교회에서 위문과 상담 활동, 비전 캠프 등을 활발하게 시행한 결과 선진 병영 문화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개개인의 욕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느 집단이나 갈등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크고 작은 사회와 집단을 형성하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를 주제로 삼았으며, 이 문제의식을 군선교적 차원으로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군대에서 혹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기독교 신앙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함이며, 이를 모색하는 가운데 프랑스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Réne Girard)¹⁾의 희생양 이론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았다. 지라르의 사상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그는 인류 문화의 기원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폭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데 있어 독창적이면서도 응용 가능한 이론들을

1) 르네 지라르(Réne Girard)는 1923년 아비뇽(Avignon)에서 태어나서 파리 고문서학교(Ecole des Chartes de Paris)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문학 평론가이자 인류학자이다. 그는 인디애나 대학 프랑스어 강사를 시작으로 듀크 대학, 브린모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뉴욕 주립대학 등의 강사와 교수를 거쳐서 1974년부터 스탠퍼드 대학에서 현대 사상 및 프랑스 사상, 프랑스 문화 담당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최근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2005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종신회원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이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기독교를 신화, 타종교와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 반면, 지라르는 기존 인류학 연구와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기독교가 신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인류학적 측면에서 입증해 왔다.

인류학 영역에서 발전시켜 왔다. 이 글에서 또 하나의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아직 국내 신학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지라르의 인류학 이론을 신학계에 소개하여 학제간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²⁾

지라르의 핵심 사상은 ‘모방 욕망’, ‘폭력’, ‘희생양’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개념들을 본론의 각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각 장의 주제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방 욕망에서 폭력 발생’ - ‘폭력에서 희생양의 발생’ - ‘희생양을 감추는 신화’ -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기독교의 계시’라는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구성이다. 나아가 본론에서 살펴본 희생양 이론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군 교회 선교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군선교신학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과 기독교

1) 인간의 본래적 모방 욕망

지라르는 폭력이라는 문제를 ‘모방 욕망’이라는 인간 욕망의 특성에 대한 통찰로부터 시작한다. 욕망 이론에 관해서는 프로이트(S. Freud)나 그 계보를 잇는 자크 라캉(J. Lacan)이 인간 개인의 무의식 구조를 밝혀내며 정신분석의 붐을 일으킨 반면, 지라르는 무의식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인간 개인의 욕망이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면서 집단으로 번져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그 과정을 면밀하게 분

2) 뜻밖에도 국내 신학계에서는 지라르 이론에 대해 평가가 거의 다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부산장신대의 박만 교수가 신학적 관점에서 지라르를 평가한 글이 눈에 띈다. 박만, “폭력과 속죄 죽음: 르네 지라르(Réne Girard)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p. 53(2007).

석한다.³⁾

그는 구약성경 십계명으로부터 욕망 이론의 전거를 확보하는데, 특히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주목한다. 열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⁴⁾ 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탐내다’ (desire)라는 동사이다. 이 계명에서 ‘탐내다’가 가리키는 것은 지엽적인 욕망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다시 말해 욕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라르는 밝히고 있다. 지라르는 열 번째 계명 앞에 있는 제 6·9계명(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이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는 데 비해, 마지막 계명은 앞 계명들의 핵심을 꿰뚫는 구절로써 ‘욕망’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이웃의 것(남의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면 결코 살인, 간음, 절도, 거짓 증언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열 번째 계명만 지켜도 앞선 네 계명은 없어도 되는 동어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⁵⁾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란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상태를 모방하는 성향이 있다.⁶⁾ 만약 A라는 사

3) 르네 지라르는 초기에 《돈키호테》, 《적과 흑》, 《보바리 부인》 등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욕망을 분석하면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모방적인 것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소설에서 발견한 욕망 이론을 성경에 적용하여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Je vois Satan tomber comme l'éclair)를 통해 성경 인물들의 모방 욕망 구조를 보여주었다.

4) 출애굽기 20:17.

5) R. Girard, *Je vois Satan tomber comme l'éclair* (Grasset & Fasquelle, 1999), 김진식 역,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pp. 19-25.

6)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에 대한 모방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사회가 욕망 주체와 욕망의 대상 사이에 분명한 위계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모방은 적대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고, 이 경쟁적인 모방은 욕망 대상과 욕망하는 사람들 간에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잠재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R. Girard, *Les Origines De La Culture*, 김진식 역, 《문화의 기원》(서울: 기파랑, 2006), p. 12.

람이 누군가의 것을 욕망하게 될 때, A 주변의 B, C, D 등 그 외의 사람들은 A의 욕망 상태를 모방하는 ‘모방 욕망’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모방 욕망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낳게 된다. 지라르는 모방 욕망과 욕망 대상 가치의 변증법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쟁자의 등장은 욕망의 정당성과 욕망 대상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 같다. 심지어 모방은 적대감 속에서도 강화된다. 그러나 경쟁자들은 이처럼 모방이 강화된 이유를 타인과 자기 스스로에게 숨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한다.……내가 그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나는 내 경쟁자에게 그가 욕망하는 것은 욕망할 만하고 소유한 것은 소유할 만한 합당 한 이유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⁷⁾

이처럼 경쟁의 가속화는 욕망 대상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지라르는 욕망의 경쟁 관계는 점차 가열되면서 주변으로 전파되는 속성이 있어 제 3자에게 전염되어 간다고 말한다.⁸⁾ 지라르가 보기에 바로 이 ‘모방적 경쟁 관계’가 인간 사회 폭력의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지라르는 모방 욕망의 결과 폭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모방 욕망이 나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모방적이지 않다면, 항상 정해진 대상만 영원히 향하는 일종의 본능과도 같아질 것이므로, 그는 본질적으로 모방 욕망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⁹⁾ 그러므로 모방 욕망은 우리가 동물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7) R. Girard,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p. 23.

8) *Ibid.*, p. 24. 지라르는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찬양하면서 그 욕망이 이웃의 것의 찬양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이웃의 것의 찬양은 곧 증오로 바뀌게 된다고 본다. 이 맥락에서 《레위기》의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구절의 뜻이 이웃을 너보다 ‘더 사랑하지도, 덜 사랑하지도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9) *Ibid.*, p. 29.

게 해줄뿐더러, 인간을 동물보다 상위 존재로 만드는 동시에 동물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모방 욕망이라는 것이다. 즉, 모방 욕망은 인간 세계의 최선과 최악의 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⁰⁾ 이것으로 보아 세계 모든 사회 내의 제 현상들은 인간의 모방 욕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지라르는 모방적 경쟁 상태와 그 결과를 가리켜 ‘스캔들’(scandale)이라고 지칭한다. 모방적 경쟁 관계를 무한히 만들어내는 스캔들은 선망, 질투, 원한, 증오를 퍼뜨리는데, 지라르는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스캔들은 집단적 폭력의 큰 강에서 다시 만나는 작은 개울물”¹¹⁾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따로따로 존재하던 모든 스캔들은 하나의 희생양을 향하는 단 하나의 스캔들로 묶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여왕벌 주위에 벌 떼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모든 스캔들이 하나의 희생양에 달라붙는 것과 같다.¹²⁾

2) 모방 욕망에서 폭력으로의 전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 모방 욕망의 결과는 항상 폭력으로 귀결되어야 하는가? 지라르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 사회에서 모방 욕망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는 무수한 갈등과 경쟁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른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반대’의 상태로 이르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반대’ 상황이 종식되려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국가의 정치나 경제가 불안하여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거나 지역 간

10) *Ibid.*, p. 30.

11) *Ibid.*, p. 40.

12) *Ibid.*

혹은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민족을 단결할 수 있는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면, 불신과 투쟁으로 얼룩졌던 사회가 민족주의로 인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평화가 찾아오고 갈등이 해소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위해 경쟁을 하는 동안 국민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옷을 입고, 상대방 선수를 투쟁 모델로 삼아 민족의 단결력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폭력은 신기하게도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집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평화를 안겨 주는 신비스러움이 있다.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La Violence et le Sacré*)에서 ‘희생제의’ (rite sacrificiel)라는 문화적 장치에 담겨 있는 폭력의 이중성을 고발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희생물에 대한 집단 폭력을 가할 때, 모종의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스러움은 그 집단에게 합의를 통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로운 것이며, 동시에 무고한 희생양을 외부로 추방시키는 해로운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적인 것이며, 인류는 이러한 희생양 폭력을 제의화하여 그 사회를 유지해 왔었다.¹³⁾

또한 《문화의 기원》(*Les Origines De La Culture*)에서는 인류의 문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추적하였는데, 그는 문화가 무고한 희생양 죽음 이후에 일어난 ‘제의’ (ritual)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는 인류가 예기치 않았던 모방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날을 정해 ‘제의적 폭력’을 행사했는데, 애초의 무고한 희생양을 다른

것으로 바꾼 대체 희생양에게 한결같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되풀이함으로써 이 제의는 문화 전수의 한 형식이 되었다고 한다.¹⁴⁾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문화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인이 실제로 문화를 설립하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언급을 발견할 수는 없다. 다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온다. 그 뒤를 이어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는 살해에 대한 법이 나온다. 즉, 어떤 살해 이후에 살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발생하고, 뒤이어 창세기 4장 20-22절에서 나타나듯이 법적 제도 이외에 동물의 가축화와 음악과 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살해에서 문화가 발생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또한 인도의 신화에서도 보면 푸루사라는 최초의 희생양이 군중에 의해 조각으로 절단되면서 그 조각에서 카스트 제도가 나왔다고 한다.¹⁶⁾

이처럼 지라르는 문화의 발생 이면에 존재하는 ‘초석적 살해’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모방 욕망 성향에서부터 시작된 집단 폭력, 나아가 문화의 발생이라는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학자나 인류학자들은 창세기나 고대 신화를 인간 무의식으로부터의 세계관의 반영이라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실제 폭력 사건을 바라보지 못한 반면, 지라르는 성경뿐만 아니라 신화의 이면에서 희생양에 대한 집단 폭력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3) R.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é* (Grasset & Fasquelle, 1972), 김진식, 박무호 공역, 《폭력과 성스러움》(서울: 민음사, 2008), pp. 388-90;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학자였던 루돌프 오토(Rudolf Otto)는 그의 책 《성스러움의 의미》(*Das Heilige*)에서 성스러움의 역설적 차원을 종교현상학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성스러움’ (sacred)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향하게 하는 ‘매혹적인 감정’과 그것으로 인해 공포감을 갖게 되는 ‘두려운 감정’을 지어내는 역설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R. Otto, *Das Heilige*, 김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왜관: 보도출판사, 2003), pp. 97-107. 오토는 성스러움의 역설적 차원을 ‘종교현상학’적 차원에서 다룬 반면에, 지라르는 성스러움의 역설을 ‘제의적 폭력’이라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기술했다는 점에서 대립된다.

14) R. Girard, 《문화의 기원》, p. 88.

15) *Ibid.*, pp. 89-90; “아다는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창 4:20-22).

16) R. Girard,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p. 110.

3) 사탄이 만드는 희생양 메커니즘

신플라톤주의 사상과 그 궤를 나란히 하였던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에
는 선과 악, 천사와 사탄,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 등에 나타나는 사탄의 존재는 천상
에서 하나님과 투쟁하는 실재적 모델로 이해되곤 하였다.¹⁷⁾ 사탄에 대한
이미지나 그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라르는 앞선 모방 욕망
과 폭력의 관점에서 사탄을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기독교 신학
에 인류학적 지평을 넓혀 준다.

지라르는 사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모방 욕망에 빠지게 하는 일종의
'스캔들' 이라고 정의한다. 지라르는 예수도 사탄을 스캔들로 간주했다는
증거를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구절에 앞서 예수는 자
신이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
에게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에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하였
었다.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
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칭하며 엄하게 꾸짖
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에서 '스캔들'
(skandal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베드로는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지나치게 체념하고 있다고 판단하자 자신의 속세의 욕망을 예수
에게 불어넣으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욕망을 모델로 삼기를 권유했던 것

이다. 지라르는 만약 예수가 베드로의 권유를 따르게 되었다면 베드로와
예수는 곧 모방적 경쟁 관계에 빠지게 되는 스캔들이 성립되었을 것이라
고 주장한다. 따라서 베드로는 스캔들을 뿌리는 자, 사람들로 하여금 경
쟁적인 모델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사탄이 된다.¹⁸⁾

희생양 메커니즘은 모방 욕망에서 집단 경쟁, 그리고 한 명의 희생양
에 대한 집단 폭력의 과정으로 발전하는데, 이 과정이 사탄이 하는 주요
역할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 명에 대한 집단 폭력의 결과는 그 폭력을
행사한 집단에게 묘한 평화를 맛보게 하며 그 공동체가 파멸로 치닫게 되
는 것을 막아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지라르는 사탄의 이러한 역할을 "무
질서의 원칙인 동시에 질서의 원칙"¹⁹⁾이라고 지칭한다. 무질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무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어 그 집단이 혼
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질서라는 것은 혼란에 빠진 집단이 한 명
에 대한 집단 반대라는 합의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²⁰⁾ 이것이 바로 지라르가 정의하는 사탄의 정체이자
사탄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라르가 성경에서 이끌어내는 사탄은 어떤 집
단을 파멸로 몰아세우면서 동시에 재건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존재
하지 않는, 틸리히가 자주 사용했던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존재'(non-
being)라고 볼 수 있다.

17)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한 월터 윈크(Walter Wink)는 거룩한 소명을 배
신해버린 국가나 사회적 지배체제의 '비인격적 영적 실재'(the impersonal spiritual reali-
ties)를 사탄(Satan)이라고 부른다. W. Wink, *Engaging the Powers*,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p. 35; 지라르의 '스캔들' 혹은 '사
탄'의 개념은 '욕망의 회오리'라는 누구나 휩쓸려 갈 수 있는 집단의식이라고 한다면, 윈크의
사탄 개념은 지배체제가 피지배체제를 대상으로 발휘하는 비인격적 기운(혹은 내면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리코르(P. Ricoeur)는 '악'(사탄)을 종교적 체험으로 다루면서, 성스러운 것
과의 관계가 단절될 위험을 느끼는 것(위기)을 말한다. P. Ricoeur *La Symbolique du mal*,
양명수 역, 《악의 상징》(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p. 19.

18) R. Girard,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pp. 51-52.

19) *Ibid.*, p. 53.

20) 이러한 관점에서 라인홀드 니버(R. Niebuhr)의 주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의 핵심도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니버는 인간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도덕적이지만,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비도덕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는데, 지라르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개인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때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지 않
는 상황이어서 갈등이나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는 반면, 여러 사람들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모방 욕망에 빠짐으로써 상대방의 욕망을 모방하게 되고, 그 결과 치열한 경
쟁 관계가 성립된다. 이것이 곧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간극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신화의 탄생, 허구의 탄생

예전에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프로를 시청한 기독교 신자들은 고대 신화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인문학에서는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 격인 그리스 신화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선포를 해왔는데, 이에 힘입어 국내에선 신화 해석에 관한 서적들이 인기몰이를 하였다. 그 가운데 20세기 비교신화학의 거장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의 신화 해석이 국내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의 기독교 해석은 표면적으로 ‘기독교의 기원은 신화다’라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그는 신화가 단순히 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무의식이 투영된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느 시대나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실의 왜곡이 아닌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신비의 반영이며,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원도 이러한 연유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그의 명성에 걸맞는 방대한 신화 연구는 우리를 질식시킬 정도로 풍부하며, 심리학과 인도 철학에 기반을 둔 그의 해석은 질적으로도 탁월하다. 그러나 지라르의 관점에서 보자면 캠벨이 방대한 신화 연구를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는 ‘폭력’이라는 사건을 왜 주목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저서 곳곳에서 드러나듯 캠벨은 칼 융(C. Jung)의 집단무의식과 인도의 경전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tat tvam asi!’(내가 바로 그것이다)²¹⁾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 폭력 사건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지라르는 신화에 대해 “혹사병과 같은 재앙으로 인한 엄청난 공포 속에서 행해졌던 집단 폭력에 대한 날조에 가깝다”²²⁾고 표현하면서 신화를

21) 캠벨이 집착하고 있는 ‘tat tvam asi’는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신화를 접근하자면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곧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신성의 반영이다.

22) Ibid., p. 97.

상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사실상 종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뮐러(Max Müller) 이래로 종교나 신화 언어에 대한 접근이 ‘상징’(symbol)이라는 코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신화나 종교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 사건에 대한 자연스런 증발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종교철학자 존 히크(John Hick)은 종교 언어를 1차적 언어와 2차적 언어로 구분하면서 1차적 언어는 종교나 신화의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를 가리키는 상징적 언어이며, 2차적 언어는 1차적 언어를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언어라고 하면서 종교나 신화의 본질적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차적 언어인 상징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²³⁾ 그러나 지라르는 이런 식의 해석은 진실에 반대하는 어떤 체계적인 선입견에 지배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라르는 신화의 탄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어떤 집단이 모방에 의해 의심하던 한 개인을 살해하고 추방한 뒤에 그 사회가 평화를 되찾고 화해를 이루면 이번에는 그 개인을 숭배하기 시작한다.……그들이 화해를 되찾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바로 그들 스스로가 처음에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그러다가 일단 화해를 느낄 때에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희생양에게 투사하였기 때문이다.²⁴⁾

이처럼 고대 신화는 희생양의 신성화에서 탄생되어 왔다. 그런데 이 희생양이 선택되는 과정에는 우선적인 특징이 있다. 사람들이 어떤 무고한 희생양을 선택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고 속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장애나 질병은 신적인 저주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

23) J. Hick, *The Philosophy of Religion*, 김희수 역, 《종교철학》(서울: 동문선, 2000).

24) R. Girard,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p. 90.

며, 그러한 생각과 통념이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지라르는 세계 신화들을 분석하면서 “절름발이, 애꾸, 외팔이, 맹인을 비롯한 여러 불구자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²⁵⁾ 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고대 신화에는 집단 살해 및 투석형과 같은 희생양 처형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희생양 덕분에 평화와 화해를 되찾은 공동체는 자신들을 화해시킨 신을 찾는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선행을 행한 바로 그 희생양을 주목하게 된다. 신화는 주인공의 이런 신분 변화를 해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는다.²⁶⁾ 그리하여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성한 존재에 들어 있던 해로운 면은 흐릿해지고 이로운 면이 더 많이 부각되면서 신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학적이고, 문화적인 숭배 효과가 더해진다. 신화학자들은 여기에 온통 매료된 나머지 폭력에 대한 실제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라르는 신화를 “인간으로서 겪는 곤경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²⁷⁾라고 정의한 영국의 유명한 여성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이나 “인간 삶의 영적 잠재력을 찾는 데 필요한 실마리”²⁸⁾라고 정의한 조셉 캠벨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형이상학》(Metaphysica)에서 신화는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신화가 “맨 처음에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

들은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후세에 전해 주었을 뿐, 그 증명은 전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²⁹⁾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을 철저한 증명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과 대비시키기 위해 신화를 언급하였으나 지라르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해석하자면, 신화가 증명을 전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문이 아닐뿐더러 거짓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결국 지라르의 신화에 대한 입장은 실제 폭력 사건을 교묘히 감추는 이야기, 혹은 거짓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³¹⁾ 그러나 여기서 정작 취해야 할 요점은 신화가 거짓된 이야기라는 결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 즉 ‘폭력’이라는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어 전달되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라르는 성경과 신화가 종교학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유사성을 넘어서 너무나 분명한 동질성-실제 일어난 사건-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현대 종교학자나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상징’과 ‘신비’의 코드로 기독교와 신화를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성경의 이야기와 신화의 이야기가 유사하다고 하였지만, 지라르는 고대 초창기부터 있어 왔고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 설립의 기원이 되었던 ‘폭력’이라는 실질적 사건으로 접근하자 성경과 신화가 너무나 유사한 ‘폭력’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신화는 그 사실을 왜곡하여 감추고 있고, 기독교는 그 사건을 있는

25) R. Girard, *Le bouc émissaire*, 김진식 역, 《희생양》(서울: 민음사, 2007), p. 57.

26) R. Girard,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p. 97.

27) K. Armstrong, *A Short History of Myth*, 이다희 역, 《신화의 역사》(경기: 문학동네, 2005), p. 12.

28) J. Campbell, B. Moyers, *The Power of Myth*, 이윤기 역, 《신화의 힘》(경기: 이플리오, 2007), p. 29.

29) Johannes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강성위 역, 《서양철학사 上》(대구: 이문출판사, 2004), p. 20.

30) 조셉 캠벨은 한 청년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신화가 대중에게 허구라는 사실만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워했다. J. Campbell, *THOU ART THAT*, 박경미 역, 《네가 바로 그것이다》(서울: 해바라기, 2004), pp. 29-32. 그러나 지라르는 ‘아마도 신화는 허구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31) 물론 세계 모든 신화가 실질적 폭력 사건과 연류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지라르의 단편적 신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윌터 윈크(W. Wink)에 따르면, 전 세계의 신화들의 주제가 희생양이라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며, 비폭력적인 신화(예: Hopi 인디언의 탈출 신화)도 존재한다고 한다. W. Wink,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p. 250.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신화와 성경은 너무나 다르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신화로부터 공격받는 기독교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하다.³²⁾

5)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학적 복음

지금까지 살펴본 지라르의 인류학 이론을 통해 인간의 모방 욕망과 폭력의 관계, 이 구조를 지배하는 ‘사탄’이라는 세력, 그리고 사탄의 조종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희생양,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신화’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 인류학적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도구로 삼아 인류학적 토대 위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재건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류학적 단초들이 발견될 때, 인간 사회 내에서의 기독교 가치를 입증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군선교신학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으로 고백해 왔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수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비기독교인들로부터 공격받아 온 성역이다. 그들이 취하고 있는 무기는 앞서 살펴보았던 왜곡된 이야기 ‘신화’ (myth)이다. 지라르가 신화의 허구성에 대해 폭로해 준 덕분에 이제 우리는 신화와 기독교가 비교되는 일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비교 작업을 기회로 삼아 기독교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신화에서 나타나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특징은 폭력을 행한 집단이 우

연찮게 지목한 희생양을 ‘악’으로 몰아세우면서, 나중에는 반대로 그 희생양을 신격화시키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지라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화에서는 “악마로 만드는 전이 과정”³³⁾이 빠져 있다는 것이 신화의 신격화와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복음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공통된 고백을 하고 있기에 기독교의 신격화는 신화의 신격화와 그 출생지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라르는 신화와는 달리 “예수를 두고 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행하던 만장일치의 군중이 아니라, 전체에 반대하던 소수, 즉 그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전체의 만장일치를 깨뜨리는 소그룹의 사람들로서, 예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도들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³⁴⁾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와 신화는 전적으로 다름을 증명하고 있다.

신화나 성경,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특징은 집단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현재 저지르고 있는 폭력의 잔혹성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무의식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라르는 신화의 작업은 이와 같은 ‘무지’ 혹은 ‘박해의 무의식’에 기초해 있는데, 이런 것을 신화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고 결코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신화 자체가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³⁵⁾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기독교가 단순히 신화와 다르다는 자기 만족에만 그치는 것이 인류학적 복음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여태껏 인류는 무고한 희생양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로 인해 ‘폭력’의 야만성과 그 잔인함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

32) 지라르의 신화 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20세기 초 신약성경에 큰 화두를 던진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의 비신화화 이론에도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볼트만의 말대로 신약성경이 비신화화 작업을 통해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어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한다면 성경을 비신화화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신화를 비신화화’(demythologizing myth)하여 신화 이면에 존재하는 폭력의 구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33) R. Girard,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p. 158.

34) *Ibid.*, p. 159.

35) *Ibid.*, pp. 161-162. 지라르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절규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이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집단 가해자들의 ‘박해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본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또한 지라르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목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발견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행 3:17).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자 성경의 증언이다. 사탄은 그가 만들어내는 스캔들로 승승장구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탄은 자신이 판 무덤에 제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³⁶⁾

성경이 그 어떤 종교 경전보다도 위대한 이유는 인류 문명의 발생이 폭력에 근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고대 문학이나 신화들이 지배하던 은폐 역사의 천막을 과감하게 걷어 버린 점에 있다. 이것이 바로 ‘계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남)이다. 계시(revelation)는 종교 신비주의자들의 신신놀음과도 무관하며, 신화에서 박해자들이 인식하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군중들이나 그를 배반한 제자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사탄의 놀음, 즉 폭력의 실체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인류학적 복음은 기독교 신자나 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있는 사탄의 스캔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든다. 일종의 삶의 대전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가 인식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세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사건을 우리가 그동안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다.³⁷⁾ 이것은 복음서에서만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지라르의 말대로 구약은 모방에 의한 전염과 만인의 일인에 대한 박해의 비밀을 드러내고 예언을 하고 있

36) 예수 일인에 대한 집단 반대에 가담했던 한 인물인 백부장이 나중에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라고 했던 고백은,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스캔들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순간임을 암시한다.

37)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한 것은 신화의 왜곡된 진실과 사탄이 만든 스캔들을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전 2:6-8).

는데, 이 예언은 “시대와도 무관하고, 그 희생양이 속한 민족, 종교, 문화와도 무관하고, 인류 역사상의 모든 집단적 박해의 수난과 연결되어 있다.”³⁸⁾ 따라서 인류학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보편성을 부여하며, 이러한 사상을 접한 군대 내의 기독교인들이라면 군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구타 및 가혹 행위, 폭력 행위와 그에 대한 예방을 종교적 관점에서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르네 지라르 사상의 군선교적 응용

1) 인류학적 복음의 군선교적 역할

지라르의 이론 전개 방식은 문학 작품의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 일반 사회의 배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발생될 수 있는 모방 욕망과 폭력이라는 보편적 틀 거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응용 폭이 굉장히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인류학적 접근을 군선교적 차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군 교회가 여러 가지 선도 활동이나 상담교육을 통해 선진 병영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하고, 정기적인 기도회를 통해 부대의 안전을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대 내에 폭력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 해석한다면 우리의 신학적 사고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지라르가 밝힌 인류학적 복음의 측면에

38) R. Girard,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p. 165.

서 말하자면, 폭력을 행한 사람들의 모방 욕망 성향과 폭력에 대한 무의식 내지는 무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경우 흡사 예수를 폭력의 현장으로 몰아세운 사람들처럼, 자기가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이유이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나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다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폭력의 자화상을 인식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에서만뿐 아니라 군대에서도 폭력에 대해 기독교의 계시가 예방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지라르가 인류 문화와 사회를 진단하였듯이 군대도 어느 사회나 모임처럼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단체생활과 공동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어떤 사람이 공동체 의식에서 이탈될 경우 모방 욕망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희생양 만들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대 신화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나 행동에서 이탈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선택될 높은 가능성을 지닌 채 살아갔으며, 결국엔 희생양으로 선택되어 그 집단에 거짓 평화를 선사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군대에서 혹 발생할지 모를 갈등이나 폭력에 대비하여 지라르가 보여준 인류학적 복음으로 신앙 교육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군선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계기로 군 교회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새롭고도 실천 가능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군선교신학의 새로운 전환

인간이 모인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해결은 ‘이해’에서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 지라르의 인류학 연구를 통해 인간의 갈등과 폭력의 발생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 문제는 보편적인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폭력의 발생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은 군대 내에서 사고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성경의 현장으로 초대한다. 이들 중 비기독교 신자들이 이러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발을 딛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인류학적 토대 위에 정립된 복음으로 선진 병영 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학계에서는 지라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군선교신학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접목이다. 보통 군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예방과 상담 교육은 프로이드 이론에서 응용된 정신분석학적 심리검사나 성격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나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군대의 공동체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적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지라르가 접근하였던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방 욕망과 폭력을 이해시키는 관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본다. 또한 앞서 확인되었듯이 폭력의 문제는 기독교의 복음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성과 현실성을 가진 ‘삶의 종교’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둘째로 군 교회 내의 성경공부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새 신자 교육이나 성경공부는 교리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새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지루하면서도 그저 바라만 봐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교회 교육이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그치게 되어 기독교 신앙을 삶과 연결시키는 데 많은 이들이 고민해 왔다. 이제는 인류학적 복음의 장점을 성경 해석에 도입하여 성경공부를 통해 얻은 가르침을 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실천성을 가져다주는 교육이라는 것을 보

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군대에서 인류학적 복음을 접한 병사들은 전역 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도, 기독교 복음이 사회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복음을 사회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비전 2020의 정책 중 하나인 ‘기독 장병들의 전역 후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인문학을 전공한 병사들의 경우, 인문학 내에서 기독교 복음의 발견 가능성을 군 교회에서 심어 줌으로써, 장차 학계에서 신학과 인문학과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해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류학적 복음을 접목시킨 기독교적 의례(ritual)의 확립이다. 고대 사회는 ‘희생 제의의식’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의식을 통해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갔다고 했다. 그 의식에는 희생양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양을 자처함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희생양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 경각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례로 활용한다면 참여하는 이들에게 잠재된 모방 성향과 폭력을 자각시켜 주어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지라르의 이론을 군선교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응용하여, 폭력에 대한 이해를 함과 동시에 왜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군 선교에서의 뚜렷한 기독교 정체성을 찾는 것이며, 동시에 군복음화에 물꼬를 트는 든든한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의 핵심이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우리의 스트레스나 화를 승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꾀임이라는 것을 알아채며, 그것을 사전에 자각하여 군 교회를 중심으로 병사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군선교신학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전역 후에 사회로 나아가는 병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군 교회를 통해 접하였다면, 그들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 단순히 군복음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복음화에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군선교신학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폭력의 자화상을 미리 인식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회개와 변화된 삶을 촉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만든다. 우리는 사회에서 들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 중 종교적 모습만 강조하는 것을 탈피하여 사고 예방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인류학적 복음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이 고민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인류학적 복음에 기초한 군선교신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행진곡풍으로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1. 빛 으로 감 옷 입 은 순 결 한 젊 은 이 들 을 보 소 서
2. 힘 차 게 행 진 하 며 노 래 하 는 청 년 들 을 보 소 서
3. 믿 음 의 백 성 들 아 주 님 이 추 수 궂 을 부 르 신 다

오 주 여 저 들 의 심 령 에 임 하 시 읊 소 서
당 신 의 것 이 니 양 처 럼 기 르 시 읊 소 서
내 게 말 겨 주 신 생 명 과 불 질 을 다 바 처

당 신 의 강 한 팔 이 저 들 을 불 드 시 면 -
승 리 의 대 장 예 수 저 들 을 통 치 하 사 -
복 음 의 맺 칠 되 어 아 깃 없 이 타 리 라 -

민 족 이 경 성 하 리 이 다 세 계 가 진 동 하 리 이 다
교 회 를 뜨 겁 게 하 소 서 사 회 를 깨 끗 케 하 소 서
주 님 다 시 오 시 기 전 에 인 류 구 원 밀 알 되 리 라

이 땅 위 에 태 어 나 서 할 일 도 많 다 만
예 수 의 - 이 름 으 로 십 자 가 군 병 만 드 시 어

어 둠 을 몰 아 내 소 서 세 상 을 정 복 하 소 서
문 화 를 정 케 하 소 서 비 전 을 품 게 하 소 서
군 대 를 축 복 하 소 서 민 족 을 구 원 하 소 서

새 천 년 참 된 평 화 의 방 패 삼 아 주 소 서
통 일 된 조 국 의 되 는 빛 과 큰 영 광 받 으 소 서

비전 2020을 이루라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이 민 족 - 을 향 하 신 - 하 나 님 의 계 획 중 심 에 -
수 백 만 - 의 생 명 을 - 우리 통 해 살 리 신 주 님 -

청 년 을 - 살 리 라 는 - 소 중 한 부 르 심 이 있 어 - 선
불 타 는 - 가 습 속 에 - 억 만 의 민 족 을 품 고 서 - 죽

교 의 큰 물 결 이 - 군 대 를 뒤 덮 었 도 다 - 그 -
도 록 충 성 하 라 - 심 령 을 인 도 하 시 네 - 성 도

역 사 를 위 하 여 - 기 도 가 하 늘 을 - 찢 - 렸 도 다
여 교 회 들 이 여 - 영 적 인 전 쟁 에 - 너 를 부 르 다

이 귀 한 영 혼 들 을 깨 워 내 음 성 을 들 게 하 라 -
저 젊 은 영 혼 들 을 살 려 내 백 성 이 되 게 하 라 - 오

(남성) 라 너 하 나 님 의 사 람 아 - 가
(여성) 비 전 20 - 20 을 이 루 라 -
라 너 하 나 님 의 사 람 아 -
비 전 20 - 20 을 향 하 여 -

아, 비전 2020이여!

빠르고 힘차게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나라와민-죽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안고 바른
사랑과 섬김으로 미래성도를 잉태하면서 빛나

신앙으로-필승의 군대를-만들어왔네 군과민
은 청년들-수없는 세레로-구원하였네 온백성

죽 인류복음화를 향한-비전 2020
이 흰웃입고 두손드는-이-천이 십년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우리는 달린다
가슴 벅찬 그날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는 일한다

믿음의-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담대하
믿음의-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전진하

라-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신다
라-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신다

비전 2020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걸
비전 2020 위하여 충성하라 생명을 걸

고 아-아 비전 2020이여

판권
소유

군선교신학 7

2009년 5월 15일 인쇄

2009년 5월 20일 발행

발행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 |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 쿼란출판사

주소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 02-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 02-747-1004, FAX / 02-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umran@hitel.net

qumran@paran.com

한글인터넷주소 |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값 12,000원

